

모교에 커피차 김도영 “실력으로 동성고 빛내겠다”

은사님 등에 감사 인사 위해 깜짝 이벤트
“전반기 기억 살려 하반기 좋은 역할할 것”



20일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의 모교 동성고가 들쭉였다. 이날 오전 동성고에는 ‘더운 날씨에 힘내시고 야구부 후배들 많이 애써주세요’, ‘기아타이거즈 김도영이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야구부 후배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입간판과 현수막으로 꾸며진 커피차가 등장했다. 동성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김도영이 선생님들은 물론 영양사, 경비원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깜짝 이벤트’였다. 커피차만 등장한 게 아니었다. 김도영은 이날 오후 훈련에 앞서 시간을 내 동성고를 직접 찾았다. 김도영의 등장에 후배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사인 요청을 하는 등 학교가 들쭉였다. 동성고 신장호 교장은 “도영이가 운동 실력도 좋았지만, 선수로서 바르고 성실한 행동으로 야구부의 본보기가 되었고, 이를 후배들이 보고 배우며 따랐다”며 “또 평소의 팀 분위기와 훈련과정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생이었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을 지도한 김재덕 감독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됐다. 김 감독은 “제자가 사준 커피를 마시게 됐다. 커피차는 처음 봤는데 더운 날씨에 선생님들에 좋은 선물이 된 것 같다. 야구부에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 같다”고 웃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어겠다’는 것을 배운 김도영이다. 팬들이 보내준 커피차에 아이디어를 얻은 김도영은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김도영은 “(야구부) 후배들은 챙겨주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에게는 해드린 게 없어서 소소한 것이라도 하고 싶어서 누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날도 덥고 고생하시니까 드시고 힘내시라는 의미였다. 학교 와서 사인도 하게 돼서 새롭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앞으로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서 모교를 더욱 빛내겠다는 각오다. 시즌 초반 성적은 한참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 경험을 쌓은 김도영은 반전의 7월을 보냈다. 김도영은 올스타브레이크까지 7월 9경기에서 나와 30타수 9안타, 3할 타율을 찍었고 3개의 홈런포도 장식했다. 전반기가 끝나는 게 아쉬운 좋은 페이스였지만 김도영은 “좋은 휴식이 됐다”고 말한다. 김도영은 “다시 몸 만들고 준비 잘해서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번 쉬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전반기 때 야구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쉬 때는 생각 비우고 쉬었다. 다시 훈련 시작하면서 타격적인 것, 수비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준비를 시작하면서 김도영은 ‘타이밍’이라는 숙제를 얻었다. 이범호 코치에게 상대의 타이밍에 맞춰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를 갖추라는 주문을 받았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20일 모교인 동성고에 커피차를 선물한 뒤 하반기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영은 “코치님이 주문한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빨리 생각해서, 연습하겠다. 연습해보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훈련할 때 계속 생각하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지난 12일 잠실 관중석 좌측 상단을 때리는 커다란 홈런을 기록했다. 시즌 3호포. 앞선 두 개의 홈런이 팀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세 번째 홈런은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오는 썩어포가 됐다. 김도영에게는 자신감을 더한, 기분 좋은 홈런이 됐다. 김도영은 “인코스에 들어와서 돌렸는데,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했다. 하지만 홈런은 조금 넘어가든, 크게 넘어가든 똑같은 홈런이다. 몇 미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치는지가 중요

한 것 같다”며 “빠른 시간에,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홈런이 나와서 상대도 쫓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홈런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전반기 종료 즈음처럼 타격을 유지하되 수비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을 하반기 목표로 삼아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득점 기계’ 레반도프스키 바르샤사서 뛰다

4년 계약...바이아웃 7000억

스페인 프로축구 ‘거함’ FC바르셀로나가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 영입을 확정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20일(한국시간)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던 레반도프스키와 4년 계약을 맺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바르셀로나에 따르면 구단은 뮌헨에 이적료로 선금 4천500만 유로와 옵션 500만 유로(합계 약 667억7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바르셀로나와 레반도프스키의 계약에 무려 5억 유로(약 6천683억2천만 원)에 달하는 바이아웃(이적 허용 최소 이적료) 조항이 들어갔다. 차후 레반도프스키를 데려가려는 구단은 5억 유로 이상을 바르셀로나에 제시해야 바르셀로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미 전날 프리시즌 미국 투어 중인 바르셀로나 선수단에 합류했고, 훈련도 소화했다. 그의 이적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이적료와 새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이 팬들의 관심사로 남아있었다. 레반도프스키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골잡이 중 하나로 꼽힌다. 2010년부터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문트, 뮌헨 소속으로 12시즌을 소화하면서 384경기 312골을 기록했다. 이 기간 공식전에서 넣은 득점 기록은 총 447골이나 된다. 더 무서운 것은 30대 들어 더 매서운 득점력을 뽐냈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에서 2019-2020시즌 34골, 2020-2021시즌 41골, 지난 시즌 35골을 폭발했다. 또 최근 5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차지했다. 리오넬 메시를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떠나 보낸 뒤 그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 애를 먹던 바르셀로나에 레반도프스키는 최적의 선택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16일부터 미국에서 프리시즌 투어 일정을 소화 중이다.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댈러스 등지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 인터 마이애미, 뉴욕 레드볼스(이상 미국)를 상대한다. 레반도프스키는 일단 20일 인터 마이애미와 경기에서는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경기를 앞두고 바르셀로나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훈련을 소화했다. 이르면 다음 경기인 24일 레알 마드리드와 ‘비공식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레반도프스키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레반도프스키가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 CF와 친선게임을 앞두고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캡틴 안영규, 27R 베스트11

안양전 수적 열세에도 무승부 견인

광주FC의 ‘캡틴’ 안영규(사진)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안영규가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2 27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안영규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경기에서 ‘수적 열세’에도 무실점 경기를 이끌면서 0-0 무승부를 연출했다. 이날 광주는 전반 42분 김중우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안영규를 중심으로 방어에 나서 승점 1점을 보냈다. 광주가 위기 속에서 무승부는 기록했지만 2위 대전하나시나이즌이 서울이랜드전 3-1승리로 격차를 8점 차로 좁혔다. 27라운드 MVP는 1골 1도움으로 대전의 승리를 이끈 레안드로의 차지가 됐다. 이날 대전은 배준호의 선제골에 이어 윌리안과 레안드로의 연속골로 3-1 승리를 거뒀다. 4골이 나온 이 경기가 베스트 매치가 됐고, 대전은 베스트 팀이 됐다. 한편 광주는 휴식 라운드를 보낸 뒤 오는 27일 부산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1위 독주’



를 위한 승점 사냥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산토스, 남자 400m허들 대회新... 바르홀름 제쳤다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우승

알리송 도스 산토스(22·브라질)가 ‘역대 최고 남자 허들 선수’로 꼽히는 카르스텐 바르홀름(26·노르웨이)을 제치고,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산토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400m 허들 결선에서 46초29에 레이스를 마쳤다. 46초29는 케빈 영(미국)이 1993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세운 47초18을 0.89초 당긴 대회 신기록이다. 산토스는 세계선수권 개인 처음이자, 이 종목에서 브라질의 첫 메달을 획득했다. 그동안 남자 400m 허들은 ‘바르홀름의 독주 체제’였다. 하지만, 바르홀름은 허벅지 부상 후유증으로 올해 단 한 번도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세계선수권 무대에 섰다. 예선과 준결선은 무난히 통과했지만, 결선에서는 ‘훈련 부족’의 한계를 드러냈다. 바르홀름은 총 10개의 허들을 넘는 400m 허들에서 7번째 허들까지 선두를 달렸지만, 8번째 허

들 앞에서 역전을 허용했고 속력이 푹 떨어지며 48초42로 7위에 그쳤다. 바르홀름에 연거푸 패하며 ‘2인자’로 불리던 라이 벤저민(25·미국)은 이번 대회에서는 도스 산토스에게 밀렸다. 벤저민은 46초89로 2위에 올랐다. 벤저민은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2년 유진에서도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산토스는 개인 첫 메이저 대회였던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7위를 한 산토스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3위에 오르며 세계 정상급 허들 선수로 부상했다. 2022년 유진 세계선수권에서는 ‘재왕’ 바르홀름과 ‘2인자’ 벤저민을 모두 제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남자 1,500m에서도 이번이 일어났다. 제이크 화이트먼(28·영국)은 3분29초23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현역 중거리 최강자’ 야코프 잉게브리그스텐(22·노르웨이)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잉게브리그스텐은 3분29초47로 2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